이 한 점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보배가 있다

☞ 17면에서 계속

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비할 수가 없어서 나무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한 발을 디뎠다 하더라도 한 발 디딘 사이 없이 그렇게 찰나찰나 나투면서 소소영영하게 여러분과 바로 둘이 아니게…,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생활면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어야 하나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나 내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써….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픈 것도 역시 이게 공부의 과정이구나 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두되 바깥으로 두지 않았다 이겁니다. '음, 네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것도 있는 거고, 네가 있기 때문에 고생도 하는 거고, 네가 있기 때문에 웃기도 하고' 너로 인해서 이 만법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니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놔 버린 것 밖에는 없어.

여러분, 여러분이 수없이, 나를 세울 수 없이 찰나찰나로 화해서 돌아가고 있는 마당에, 변질되고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마당에 영원토록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런 뜻은, 여러분이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죽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 산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도 없다는 그 뜻을, 내가 수차 얘기합니다마는 모습을 바꿔서 옮겨서, 바로 요렇게 한 발 한 발 옮겨 갈 뿐이지 죽는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더러우면 만날 바꿔 입고 더러우면 바꿔 입고 이렇게 합디다. 이거는 생사에 안 걸립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옷만 바꿔 입었다 뿐이지 그 옷이 죽었습니까? (중략)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 다섯을 기르는 데에 병원비가 한 달이면 보통 7만 원, 8만 원 나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10만 원도 모자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하나도 안 나간다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정에 이익입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벌고 안에서는 마음을 졸이고, 차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회사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고, 얼마나 사람이 피땀을 흘리면서 번 땀방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 또. 그 종이짝이 문제가 아니야. 기름이 문제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생동력 있게 살아나가는 것은 만법을 잘 응용할 수 있는 이 보배로운 내 한마음에 달렸다. 이 한마음이라는 것은 우주와 더불어 같이 한 점을 비유하는데, 그 한 점마저도 찰나찰나 나투니 한 점이라고 말할 것조차도 없구나. 다만 있다면 목마를 때에 마시는 그 물 맛이 만 가지 맛이 나더라는 얘깁니다.

우리 이 불법이 얼마나 좋은지, 기독교나 천주교나 알라신이나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불법을 안 믿는 사람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안 믿는다는 사람도 사람이기에 바로 불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이 움죽거리는 것이 이게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이 따로 있는 줄 아시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따로 붙입니다. 따로 할 게 뭐 있습니까. 한 지붕 밑의 한 항아리 속에서, 지구 벌레가. 그것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구 벌레로서 영원토록 그 종 문서를 태워 버리지 못한 채 얼마만큼 화해서 정말 걸리고 걸리면서 윤회로 끄달릴 것입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업이 있느니 인과가 있느니, 또는 윤회에 말리느니 유전성이 있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생각에 모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윤회적으로 다가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업보가 많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잘하고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처음부터 어른이 된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배워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는 선배에 따라서, 사람 사는 데에 따라서 사람은 망가질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생각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걸 방향을 잘, 나침반을 놔서 내 이 몸뚱이의 중생들이 수억이 있으니 오직 한 배를 타고서 한 대표인으로서 바로 선장이 돼 가지고 내 중생을 거둘 줄 알아야 남의 중생도 거둘 줄 알고, 남의 중생에게도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도 중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한데 합쳐 줬기 때문에 대표인 사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그 중생들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깁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이 일체 만물만생이 돌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자기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인 것입니다. 모두가, 어떤 식물도 자기 아닌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모든 것이 따라 준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따라 주기에 우리가 한생각을 할 때에 우주와 더불어 일체 만물만생이 한생각으로 그냥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를 모르고야 한 손을 들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한 주장자를 들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법상을 치시며) 한 주장자를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과학이 발전이 되고 모든 게 개화가 되고 이랬다 할지라도 지금 환경에 따라서 그 불씨를 탁 들고선 앞장서 줘야 할 스님네들이 우리는 필요하고, 또 스님네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도 그 앞장서는 스님네들을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아야 뒤따르지 모르면 뒤따를 수도 없어.

이 세상에 나와서 그냥 갈 수는 없다. 왜? 엊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얼마나 쓰라림을 당했던가. 얼마나 걸리면서 끄달리면서 밟히면서 피를 흘렸던가. 그렇다면 이 모든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대로, 이렇게 형성을 시킨 것도, 이 집을 만든 것도, 내 몸이라는 이 법당을 만든 것도 바로 인연에 따라서 그 생명들이 한데 모여 줬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왔다. 그럴 때, 이 모든 인과로써 내가 이렇게 됐다면 바로 이것은 한마음이다. 한마음이라면 너 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면서, 몸 안에서도 자기가 어떤 한 도량에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가듯, 자기 간이면 간, 소장, 대장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가는데 전부 이 대표인 선장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왜 몸을 그렇게 아프게, 괴롭게 하면서 몸을 벗어야만 합니까. 여러분이 그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표인이 못 되고, 선장이 못 되고, 나침반이 틀리니까 결국은 이 속에서 소임 맡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는 자식들이 얼마나 갈 바를 모르고 고아가 돼서 헤매는가. 그와 똑같은 우리 이 마음 안의 중생들이 지금 그렇게 바라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에 기대를 걸고 이렇게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하고 나갔을 때 바로 내 이 소임이, 허파가 잘못됐다면 허파에서 바로 내 한생각에 온 누리에, 한 몸이 온 누리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온 누리의 발끝, 손끝마다 대뇌를 통해서 전부 무전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한마음이 돼 가지고선 거기를 개척을 해 나갑니다, 잘못됐다면. 그러는데 어찌 병들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아픔을 느끼고 남까지 괴롭게 하면서 옷을 벗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몸에도 수억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내 한생각, 즉 말하자면 선장에 달렸다는 점,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깐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남매를 데리고 한 어머니가 지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한양에 보내서 공부를,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 보내서 공부를 다 시켰단 말입니다. 그랬으나 부모의 마음같이 어디 자식이 그렇게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자기 멋대로 해 나가고…. 그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시켜 놨더니 야, 이거는 그냥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온통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차압이 들어와서 집도 다 그냥 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삼촌네에 모셔다 놓았는데 삼촌과 삼촌댁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으나 병이 들어서 죽고 나니까 조카들이 누가 좋다고 합니까.

남매를 길러서 딸은 시집을 보냈는데 가난한 데로 보냈어. 마음들은 착하나 가난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가깝지도 않고 먼 데로 보냈으니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들 때문에 다 넘어갔다고 딸한테다가 얘기할 수도 없는 거라. 딸의 근심이 또 병이 될까봐 어머니는 하지 못하는 말이 많아. 예전 얘깁니다마는 지금으로 돌려서도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이 절간 저 절간으로 다니면서 공양주를 해 가면서, 스님네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인제는 일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어느 절간 토굴 같은 데, 못 쓰는 데를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살아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까지, 옷을 벗고도 그 마음이, 즉 말하자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간절한, 잘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습이 죽어도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길을 인도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인도를 해서 잘돼 나가다가 결국은 인도한다는 게 절로 인도를 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은 아마 억지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입산을 해 가지고서…. (녹음 안됨)

어느 날 은사 스님한테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네 마음이요, 네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며 그 한마음 속에, 그 성품 안에 다 들어 있으니 바로 너를 움죽거리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그 성품이 바로 너이니라. 참다운 너를 발견하라. 타의에서, 어머니의 그 습에 자꾸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몰락 놔서 죽였을 때, 방하착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영원한 그 생명수의 맛을 볼 수 있으리라. 너의 어머니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너는 꼭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하고선 책도 보지 못하게 했더랍니다. "너는 책도 보지 말라."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그 분이 서산 대사라는 분이었더랍니다.

그랬는데 사명 대사하고 계실 당시에 솔 이파리하고 저 뭡니까? 날콩 찧은 거하고 짜서 그 물을 똑같이 먹었답니다. 그런데 사명 대사는 설사를 하고 서산 대사는 설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 때리면서 사명 대사더러 하는 소리가 "너는 네 한 점의 마음에, 그 빈 마음에다가 그 빈 식구들을 가볍게 넣고 다니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하면서 어째서 날콩과 익은 콩이 둘로 나누어지느냐. 그래서 설사를 하느냐!" 하고선 몽둥이로 쳤더랍니다. 사명 대사는 알면서도 그 지혜를 넓히지 못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그 지혜가 크게 넓어져서 보배가 됐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를 옛날 얘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 한 점의 마음이, 지혜가 바로 도구가 되고, 그 도구가 수많은 지금 현재 살림살이에 응용이 될 수 있고 이익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웃에 나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인과응보가 많아서 저렇게 고생을 해.' 이런 소리,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한생각으로써 '아, 그거 붙을 자리가 어디 있는고. 그 한 점에 붙을 자리가 어디 있는고.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사이에.' 그러니 모든 것은 그 마음을, 한생각을 내 주는 반면에 에너지 같은 무전통신이 바로 거기까지 도달해서 그 사람들도 다 그 길을 자연스럽게 밟게 되는 이치가 있으니 그렇게 마음으로 전달을 하십시오. 말로 전달을 하면 그게 한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잘 쓰고 남한테 이익을 주게 하고, 마음을 잘 씀으로써 말도 잘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잘 나간다면 말씀이 될 것이고 말을 잘못하고 남을 해롭게 한다면 바로 말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아시고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생활을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가며
우리가 그 만법을 응용하는데 어디서 이 만법이 나오는가.
이 한 점을 발견하라.

※위 법문은 1986년 5월 8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